

일본의 새소식



후자산의 일출
제9회 한일포토콘테스트 CLAIR상
PHOTO : SHIN SEUNG HUN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신년사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이곳에 부임한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보내 주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편,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일한 양국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를 새삼 깨닫게 하는 1년이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10월 말 이태원에서 일어난 군중 사고로 인해 일본인 유학생 2명을 포함해 많은 분이 희생 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한편 작년은 한국에서, 그리고 일한 관계에서도 큰 전환점을 맞은 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3월 대통령 선거를 거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일한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

니다. 또 일한 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어 일한 간 단기 체류자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가 재개되었고, 김포-하네다 간 및 지방 도시와의 항공편이 순차적으로 재개, 증편되고 있어 양국 간 인적 왕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의 왕래로는 하야시(林) 외무대신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시작으로 도쿠라(十倉) 게이단렌(経団連) 회장, 아소(麻生) 자민당 부총재, 야마구치(山口) 공명당 대표가 방한했습니다. 게다가 작년은 일한·한일 의원연맹 창립 50주년이었으며, 양 의원연맹의 합동총회 개최를 비롯해 활발한 의원 교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시다(岸田) 총리는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하고, 작년 11월에는 윤석열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에 협력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양국 간 현안의 조기 해결을 모색하기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9월에는 일한 양국 최대의 문화 교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한일축제한마당'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고, 5만여 명의 방문객을 맞아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다양한 대면 행사에 참가하였고, 제주, 안동, 부산 등을 방문하며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올해는 일한 양국과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후쿠오카 인근 온천 총 정리

겨울 일본 온천여행



글 / 사진 : 박용준
endeva@naver.com



01



02



03

후쿠오카 인근 온천

후쿠오카와 주변 지역은 일본에서도 온천으로 유명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천이 솟아 나온다. 온천 하면 보통 온천이 있는 료칸(旅館)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료칸은 비교적 요금이 높은 편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온천 료칸이라도 숙박하지 않고 온천만 즐길 수 있는 히가에리(日帰り, 당일치기) 온천을 운영하는 곳이 많고 벳푸, 유후인 등 대규모의 온천 지역에서는 온천만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둔 곳도 많다. 요금은 100~300엔, 테마파크처럼 좀 더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의 경우는 500~1,000엔 정도여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족욕온천인 아시유(足湯)는 대부분 무료이며, 아마가세 등 일부 산골짜기 마을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도 있다.





04



05



06



07



08

- 01 히라즈루 온천
- 02 지쿠고 강
- 03 히라즈루 온천 정글탕
- 04 히리아마 온천
- 05 아마토 료칸
- 06 히리아마 숲 속의 노천 온천
- 07 와카타 온천
- 08 와카타의 마네키네코 동상

히라즈루 온천

히라즈루 온천(原鶴温泉, 福岡)은 후쿠오카의 남쪽 구루메와 히타 사이에 있는 온천으로 지쿠고강을 끼고 그 주변에 온천 마을이 형성해 있다. 과거 지쿠고(후쿠오카)와 분고(오이타)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료칸과 숙소가 번성했다. 온천은 1800년대 후반부터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지역의 어부가 눈이 쌓이지 않는 강변을 보고 신기해 땅을 팠더니 온천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학이 강변에서 온천수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온천을 찾았다는 이



08

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온천의 수질은 알칼리성 단순 온천으로 무색, 무미, 무취하고 맑고 투명하여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매끌매끌해지기 때문에 미인 온천으로 불리고 있다.

히라야마 온천

히라야마 온천(平山温泉, 熊本)의 기원은 8세기 ~ 12세기 사이로 알려져 있다. 옛날 이 지역 일대에 개선(瘰)이라는 피부병이 크게 번져 마을 전체가 쇠퇴하고 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 고심하던 마을 사람이 모여 아소다이묘 신에게 기원을 올리자, 하룻밤 사이에 천지가 울리고 진동하며 높은 산이 열리고 깊은 계곡을 메웠다고 한다.

계곡은 평지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와 온천이 되었다고 한다. 그 물로 몸을 씻은 마을 사람의 피부병이 즉시 나아갔다고 하며 그때부터 이 지역이 히라야마 온천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특히 만성 피부병에 효능이 높아,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도 이곳에서 피부병을 치유했다고 한다.

와키타 온천

와키타 온천(脇田温泉, 福岡)은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산 중턱 계곡에 위치한 온천으로 5~6곳의 료칸과 숙박 시설이 모여 작은 온천마을을 이루고 있다. 역사에는 1,400년 전부터 등장하는 오래된 온천이나 실질적인 온



09 유후인 온천
10 기쿠치 온천

11, 12 기쿠치 온천 마을 풍경
13 기쿠치 계곡

천의 이용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이뤄졌다고 한다. 온천으로 가는 길 곳곳에는 일본의 행운 고양이 마네키네코 동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400년 전 이 지역의 스님을 위협하는 대왕 쥐를 동네 고양이가 힘을 모아 물리치고 죽였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유후인 온천

유후인 온천(由布院温泉, 大分)은 조용한 동화 속 마을을 연상케 하며, 여성이 선호하는 온천 마을 중 하나다. 한적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정돈된 거리에는 귀여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와 예쁘고 독특한 공예품 가게와 미술관, 갤러리가 모여 있다. 그뿐 아니라 달콤한 스위츠를 파는 가게와 세련된 레스토랑이 오가는 사람을 유혹해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또 안개의 호수 긴린코, 유후다케 등 자연 풍경



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기는 온천은 몸의 피로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유후인 온천은 벳푸, 구사쓰에 이어 일본에서 가장 용출량이 많은 온천 중 하나이며 온천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온천의 종류도 다양하다.

기쿠치 온천

기쿠치 온천(菊地温泉, 熊本)은 1954년 용출과 함께 시



14



15



16



17



18



19

- 14 아마가세 노천 온천
- 15 아마가세를 지나는 특급열차
- 16 지온노타키

- 17 구로카와 온천 미인유
- 18 온천 마을 고양이
- 19 구로카와 온천

- 20 유후인 긴린코 호수
- 21 유후다케
- 22 우레시노 온천
- 23 우레시노 녹차



20



21



22



23

작되어 그 역사는 짧지만, 여관이나 호텔 저마다의 원천을 갖고 있으며 분출량도 풍부하다. 무색투명 알칼리성 온천수는 ‘피부 미용의 물’, ‘화장수’로 불릴 만큼 촉감이 좋아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피부에 순하고 부드러운 수질은 미용, 신경통,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 일본의 온천 중에서도 특히 요양과 보양에 뛰어난 온천으로 2011년에는 ‘일본 온천 100선’에 선정되었다. 또 시치조우 온천 돔, 사계의 마을 쿄쿠시 등의 휴양 시설 외 많은 가족탕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아마가세 온천

아마가세 온천(天ヶ瀬温泉, 大分)은 산골짜기의 한적한 온천 마을로 유후인, 벳푸와 함께 오이타현의 3대 온천 중 하나다. 나라 시대(710~794)부터 이어온 1,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마을 한가운데를 시원하게 흘러가는 구스강(玖珠川)을 사이에 두고 강변을 따라 20여



24



25



26

- 24 유노하라 동굴 온천탕
- 25 유노하라 온천 마을
- 26 유노하라 온천 돌 바닥 언덕

채의 온천 료칸이 늘어서 있다. 강 주변에는 남녀가 함께 목욕할 수 있는 노천온천이 자리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간논노타키(観音の滝), 사쿠라타키(桜滝), 지온노타키(知恩の滝) 등 폭포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구로카와 온천

구로카와 온천(黒川温泉)은 구마모토현의 조용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온천 마을이다.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계곡을 중심으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료칸이 들어서 있는데, 각 료칸의 노천온천은 전경과 수질 등이 저마다 다른 특색을 자랑한다. 료칸의 유카타 차림으로 마을 전체를 산책할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매력이다. 조용히 돌계단을 따라 걸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귀여운 고양이, 시원한 물소리를 배경음으로 계곡을 바라보며 온천에 발을 담그는 족욕탕, 일본 전통 가옥 처마에 걸려 있는 마른 옥수수 등 아가자기한 일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옛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의 구로카와에서 여유로운 노천 온천을 즐겨보자.

우레시노 온천

우레시노 온천(嬉野温泉, 佐賀)은 1,3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일본의 역사서인 히젠국 풍토기(712년)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의 신공 황후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렀다가 강 중앙에서 온천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온천수가 부상당한 병사의 상처를 치유해주자 크게 기뻐하며 ‘우레시(嬉しい)’라고 말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우레시노 온천은 일본 온천 연구가 후지타 사토시(藤田聡)가 시마네현(島根県) 히노카미(斐乃上) 온천, 도치기현(栃木県) 기쓰레가와(喜連川) 온천과 함께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일본의 3대 미인온천으로 선정되었다. 우레시노 온천의 매끈매끈한 온천수는 나트륨을 다량으로 함유한 중조천으로 피지와 분비물을 씻어내기 때문에 온천욕이 끝난 후에는 피부를 한 겹 벗겨낸 듯 부드럽고 매끄러워진다. 이외에 우레시노 온천수를 마시면 위장과 간장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노히라 온천

가마쿠라 시대(1185~1333)부터의 역사가 남아 있는 유노히라 온천(湯平温泉, 大分)은 유후인 온천보다 역사가 깊으며 요양을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찾았던 곳이다. 주변 온천과 달리 개발되지 않은 옛 모습을 지키고 있으며, 거북이 등껍질처럼 촘촘히 박혀 있는 바위들의 언덕(石畳)과 그 옆을 조용히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 그려내는 정겨운 거리 풍경, 세상과 동떨어진 듯 고요한 마을 분위기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온천을 즐기길 원하는 사람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벳푸 온천

사계절 변함없이 벳푸 온천(別府温泉, 大分)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가득한 거리를 걷다 보면 ‘내가 정말 온천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벳푸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온천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 온천지라 벳



27 벳푸 온천 도깨비
28 벳푸 온천 모래 찜질
29 가마도 지옥 온천

푸가 속한 오이타현은 잘 몰라도 벳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벳푸에는 벳푸하토(別府八湯)라는 8개의 온천이 있으며, 전 지역이 온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본에서도 하루 동안 솟아오르는 온천수의 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벳푸의 다양한 온천을 지옥에 비교해 온천 지옥 순례 등 테마 공원을 조성했다. 벳푸 만을 바라보며 즐기는 온천욕은 벳푸 온천의 트레이드 마크다. 온천의 종류가 많은 만큼 온천의 효능도 다양하므로, 자신의 몸에 맞는 온천을 골라 입욕하는 재미가 있다.



3년만의 한국 다시 만난 기쁨



글·사진 : 오카와 노부코(大川信子)
한일축제한마당 홍보 메세나



01



02



03

오카와 노부코의 여기는 지금

안녕하세요.한일축제한마당 홍보 메세나 오카와 노부코입니다. 2022년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무대에 사회자로 올라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많은 분이 찾아 주셔서 공연뿐 아니라 모든 부스가 인기를 끌었는데, 축제가 오랫동안 지향하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04



05



06



0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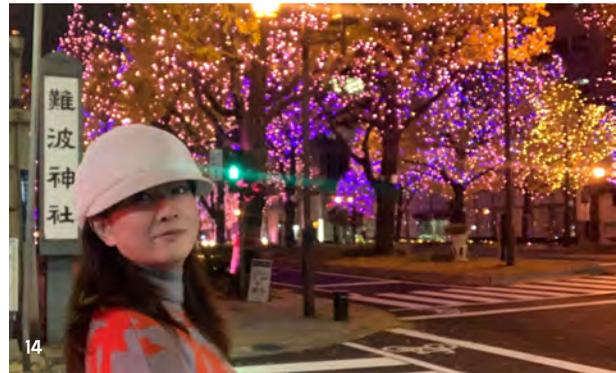
09

현재, 일본에서 한국인 여행자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방문객이 6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듯 서로가 가고 싶은 지역을 찾아 좋아하는 음식과 문화, 자연을 즐기는 듯합니다. 요즘 가게에 가면 갑자기 한국어가 들리는 경우가 늘었는데, KPOP 음악 축제가 오사카에서 열리면서 많은 한국 아티스트와 배우, 스태프가 찍은 사진이 SNS에 소개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왕래조차 쉽지 않던 3

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에 와서는 없었던 듯 합니다. 사실 3년 만에 한국에 가면서 뭘 느끼게 될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긴 인생 속에서 이런 시간이 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오는 날 비행기를 못 타자 마음이 조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운항이 하루 한 편으로 한정되어 인적이 드문 간사이 국제공항의 쓸쓸한 모습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여러분의 도움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



- 01-04 사회자로 무대에 오른 한일축제한마당
- 06-09 3년 만에 방문한 한국
- 10-14 일본의 연말 풍경
- 15-19 계묘년 관련 장식과 설 장식물
- 16 킨테쓰의 에키벤 '감잎 초밥'



로 약 3년 만에 보게 된 한국의 하늘과 대지, 바다가 보였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 당일, 주차장에서 문을 열었을 때의 풍경과 3년이란 시간이 느껴지지 않던 관객, 스태프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의 모습 등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절친과는 옆에 앉아 밥 한 끼 하는 것만으로도 의사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은 이제 가족이 사는 곳'이라는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 4부가 끝난 후 "노부코 씨 기다렸어요. 너무 즐거워요"라며 기다려주신 관객과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을 수 있

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한국에서 우연히 친구의 쇼룸에 갔다가 오페라 가수 이동신 씨를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라이브로 노래를 들려주셔서 저도 한 소절 부르면서 문화와 예술은 어디까지나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오신 한국 분도 저처럼 자주 다니던 가게 직원과 오랜만에 만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 않을까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미식 여행을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요즘 온라인에서 핫한 가게에 갔었는데



업로드 2주 만에 한국 여행자로 가득했습니다. 긴테쓰 전철을 타게 되면 '감잎 초밥'을 꼭 드셔보세요. 160년 된 노포 '히라소우(平宗)'의 감잎 초밥이 특히 맛있는데, 저는 가을 콩치 맛에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일본도 음식 값이 오르는 했지만, 서울의 상승 폭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먹었던 한식과 중식, 카페 브런치의 맛은 잊히지 않네요. 여의도의 북요리도 맛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간사이는 북요리가 맛있는데, 여러분은 고베 하면 우선 고베규(神戸牛)가 떠오르시겠죠. 문어와 도미, 아카시야키(明石焼き), 빵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베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와이 슌지(岩井俊二)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에도 등장하는데, 옛날에는 영화의 거리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는 고베의 겨울을 칼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설을 맞기 위해 한 달 동안 청소와 명절 음식을 만들며 행사 준비를 하는 12월을 시와스(師走)라고 부르며 매우 비쁜 시기입니다. 거리 곳곳에 2023년 계묘년 관련 장식은 물론, 설장식물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설은 가급적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내는 가정이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칼럼을 통해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치, 새로운 만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인도 잘 틀리는 니혼슈의 온도 표현 ‘칸’과 ‘아쓰칸’

사케소물리에인 추조 원장이 술을 키워드로 일본 문화와 사회를 소개한다.



집필 추조 카즈오(中條一夫)
주한일본대사관 기안보문화원장



**니혼슈는
뜨겁게 하면 맛이 없다.
데우는 게 맛있다.
인간의 혀가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는 건
40℃ 전후라고 한다.
또한 40℃를 넘으면
쓴맛과 떫은맛은 약하게
느껴진다.**

일본의 술집에서 메뉴에 ‘아쓰칸’이라 적힌 니혼슈(일본주)를 주문한 적이 있다. 점원이 가져온 작은 호리병을 만진 나는 ‘앗 뜨거워!’라고 외쳤다. 내게는 비상식적으로 뜨거웠는데 불평은 참기로 했다. 아마 이 점원에게 불평해도 ‘아쓰칸이 뜨거운 게 뭐가 나쁘죠?’라는 표정을 지어 당황스럽기만 할 것이다.

데운 니혼슈는 ‘칸(爛)’이라 하며 니혼슈를 데우는 것을 ‘따끈하게 데우다(爛をつける)’ 또는 ‘술을 따끈하게 데우다(酒をお爛にする)’라고 한다. 원래 ‘칸(爛)’이라는 한자는 중국에서 ‘폭 끓이다’라는 뜻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니혼슈를 데우는 경우에 사용한다. 니혼슈가 든 용기를 불에 직접 올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니혼

슈가 든 도자기나 금속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가 중탕으로 데운다. 그런 이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니혼슈를 ‘뜨겁게 하다’가 아닌 ‘데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가? 니혼슈는 뜨겁게 하면 맛이 없다. 데우는 게 맛있다. 인간의 혀가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는 건 40℃ 전후라고 한다. 또한 40℃를 넘으면 쓴맛과 떫은맛은 약하게 느껴진다.

온도계가 없던 옛날, 일본인은 데운 술의 온도를 다양한 말로 표현했다. 전국 공통의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대표적인 표현과 온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목해야하는 건 ‘아쓰칸’은 다양한

칸 중에서 '비교적 뜨거운' 온도를 뜻하며 결코 '가장 뜨겁다'나 '굉장히 뜨겁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원래 니혼슈는 60°C 이상으로 데우면 알코올 자극만 느껴지고 섬세한 향과 맛을 느끼기 어려워 진다.

아마 일본인도 '칸'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으므로 술집에서는 알기 쉽게 '아쓰칸'이라 표현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아쓰칸은 뜨거운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만다. 데운 술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일본과 한국은 모두 커피 문화가 정착해 있다. 핫(뜨거운) 커피의 온도는 60~70°C, 엑스트라 핫을 주문하면 80°C 가까운 커피를 주는



가게도 있다. 대형 술집에서는 아르바이트생도 다룰 수 있도록 급탕기 같이 생긴 데운 술 서버를 두기도 한다. 그 온도 설정이 60°C나 70°C로 되어 있다면 점원에게 '너무 뜨겁다'고

불평해도 어쩔도리가 없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아쓰칸=핫'이라 오해하고 있다면 만약 내가 점원일 때 손님에게 50°C의 데운 술을 자신 있게 내놓은 뒤 "이 아쓰칸, 좀 미지근한데요."라는 불평을 받을지도 모른다. 혹시 점원이 수작업으로 니혼슈를 데우는 술집이라면 나는 전문 용어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온천 물 온도 정도로 데워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다.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인은 '사케는 뜨겁게 마시는 거잖아'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옛날에는 일본계 이민자를 위해 일본에서 배로 니혼슈를 운반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 뜨겁게 만들어서 속였다는 설이 있는데 일본 국내에서도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는 니혼슈를 칸으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아마도 미국인에게는 일본계 이민자가 술을 데워 마시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던게 아닐까. 하지만 그런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뜨거운 사케가 아니라 따뜻한 사케다'다. 알코올 도수와 헛갈리지 않기를 바란다.

약 30°C	히나타칸(日向爛, 양지에 놓고 데운 정도)
약 35°C	히토하다칸(人肌爛, 체온으로 데운 정도)
약 40°C	누루칸(ぬる爛, 미지근하다)
약 45°C	조칸(上爛, 딱 좋다)
약 50°C	아쓰칸(熱爛, 데운 술로서는 뜨거운 편)
약 55°C	도비키리칸(飛び切り爛, 데운 술로서는 굉장히 뜨거운 편)



밥과 솥밥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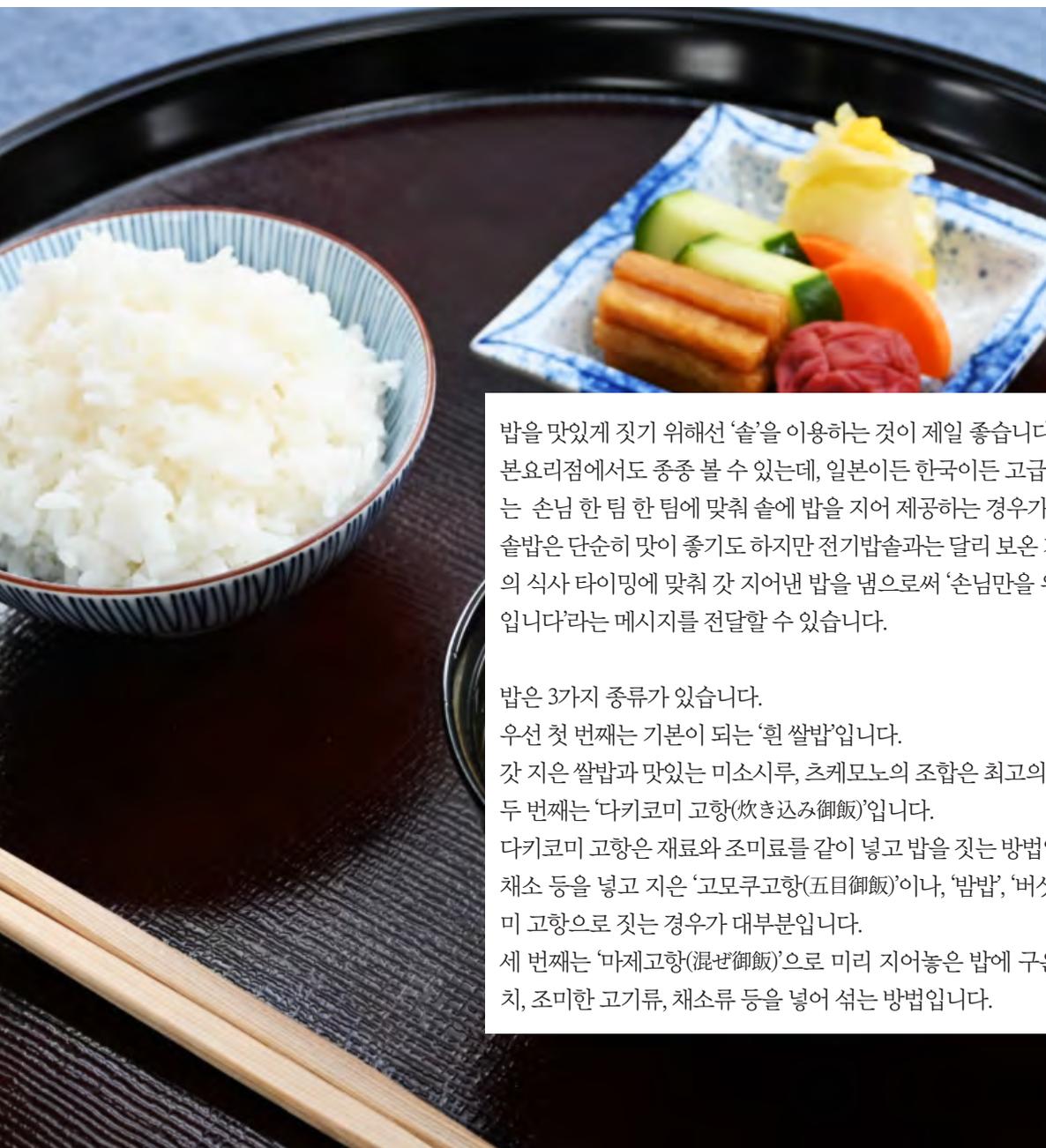
시마무라 코타 강사가 전하는 일본 요리에 담겨있는 일본 문화를 소개한다.



집필
시마무라 코타(島村公大)
현역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일본의 식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인의 '쌀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미즈호(瑞穂)'라고 불렸습니다. 미즈호란 '신성한 벼 이삭'이라는 의미로, 일본은 쌀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 벼농사가 전해진 것은 지금부터 3천 년 이상 전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쌀로 지불했고, 400년 전인 에도 시대에는 무사의 급여도 쌀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인에게 쌀은 중요한 곡물이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해선 '술'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요리점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일본이든 한국이든 고급 일본요리점에서는 손님 한 팀 한 팀에 맞춰 술에 밥을 지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밥은 단순히 맛이 좋기도 하지만 전기밥솥과는 달리 보온 기능이 없어 손님의 식사 타이밍에 맞춰 갓 지어낸 밥을 냄으로써 '손님만을 위해서 준비한 밥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밥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흰 쌀밥'입니다. 갓 지은 쌀밥과 맛있는 미소시루, 츠키모노의 조합은 최고의 만찬입니다. 두 번째는 '다키코미 고향(炊き込み御飯)'입니다. 다키코미 고향은 재료와 조미료를 같이 넣고 밥을 짓는 방법입니다. 닭고기와 채소 등을 넣고 지은 '고모쿠고향(五目御飯)'이나, '밤밥', '버섯밥' 등은 다키코미 고향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마제고향(混ぜ御飯)'으로 미리 지어놓은 밥에 구운 생선이나 잔멸치, 조미한 고기류, 채소류 등을 넣어 섞는 방법입니다.

‘솔밥’에 대해서



밥을 지을 때의 포인트는 ‘고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의 소재도 열전도율이 좋은 철이나 동과 같은 금속, 보온성이 높은 질냄비 등을 이용합니다.

일본요리는 쌀밥과 같이 먹는 것을 전제로, 간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여행 중에 간이 센 반찬과 만나게 되면, 짜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쌀밥과 같이 드셔보세요. 이렇게 간을 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반찬은 쌀밥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식사의 주인공이 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쌀밥
(기본 솔을 사용한 밥짓기)
 쌀 2컵 (320g)
 물 480cc

- ① 쌀을 씻고 30분간 불린다.
 - ② 불린 쌀을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한다.
 - ③ 솔에 ②와 분량의 물을 넣고 가열한다.
 - ④ 끓으면 가볍게 섞은 뒤, 약한 불로 줄이고 12분간 가열한다.
 - ⑤ 남은 수분을 확인하고, 10분간 뜸들인다.
 - ⑥ 다 된 밥을 주걱으로 가볍게 풀어, 밥그릇에 담는다.
- * 쌀을 씻을 때, 체에 밭쳐 놓은 채로 씻지 않도록 한다.
 - * 뜸 들이기 전에는 절대 섞지 않는다.





고모쿠 고향 五目御飯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숯밥)

쌀	2컵 (320g)
닭 다리 살	100g
당근	40g
우엉	20g
표고버섯	2장
유부	2장
참나물(줄기)	5줄기

(밥 조미료)

다시	450cc
우스쿠치 간장	20cc
고이쿠치 간장	10cc
미림	15cc
청주	20cc
소금	소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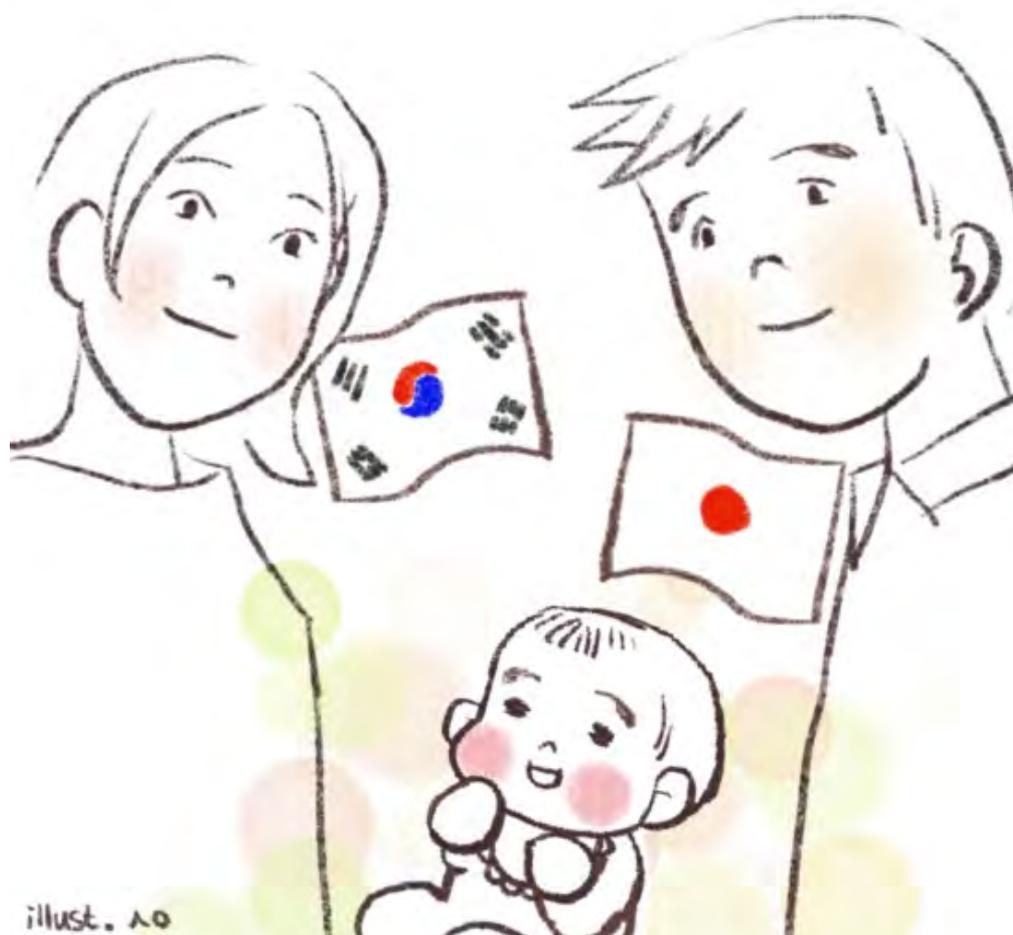
- ① 쌀을 씻고 30분간 불린다.
- ② 불린 쌀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다.
- ③ 닭 다리 살은 1cm 사각형으로 자르고, 끓는 물에 가볍게 데친다.
- ④ 당근은 두껍게 채를 썬다.
- ⑤ 우엉은 껍질째 연필 깎듯이 썬다.
- ⑥ 표고버섯은 채 썬다.
- ⑦ 유부는 잘게 썬다.
- ⑧ 참나물을 데친 후 얼음물에 식히고, 3cm 길이로 자른다.
- ⑨ 솥에 ②와 밥 조미료, ③, ④, ⑤, ⑥, ⑦을 넣고 가열한다.
- ⑩ 끓으면 가볍게 섞은 뒤, 약한 불로 줄이고 12분간 가열한다.
- ⑪ 남은 수분을 확인하고, 10분간 뜸들인다.
- ⑫ 지어진 밥을 주걱으로 가볍게 풀어, 밥그릇에 담고, ⑧을 곁들인다.





이중언어 교육

한일 부부는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쓸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열심히 육아 중인 한일 부부의 일본인 아빠입니다. 어느새 저희 아들 유짱(ゆうちゃん)의 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면 이에 관한 이야기도 써 보려고 하는데, 이번 편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한일 부부는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쓸까요?

이에 대한 답은 각양각색이겠지만, 저희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엄마(한국인)는 한국어로, 아빠(일본인)는 일본어로 유짱에게 말을 걸기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중언어에 관한 책을 읽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 방법이 아이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습득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인용해 봅니다.

“부모가 각기 다른 말을 쓰는 아이는 ‘균형잡힌 이중언어’를 발달시킬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것이다. 이런 가정의 부모들은 각자 똑같은 비중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중언어 아이들의 도전’ p.40, 바바라 A. 바우어 지음, 박찬규 옮김)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평일에 아이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이 한국인 엄마이고, 우리집을 방문하는 손님도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또 외출 시에 들려오는 목소리도 다 한국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접할 기회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일본인 아빠인 제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01 아침 기본종은 유짱
02-03 독서하는 모습



😊 평일 아침 놀아주기

유짱은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깨는 아주 부지런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해서 일본어로 말을 걸면서 유짱과 놀아 주고 있습니다.

😊 주말 밤 그림책 읽어주기

우리집에는 일본에서 가져오거나 한국에서 지인한테 받은 일본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유짱의 취침 시간 전에 일본 그림책을 읽어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짱이 그림책을 먹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요즘은 잘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일본어 쓰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에 자주 오셔서 육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데, 제대로 된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주변에 한국인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유짱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야 합니다. 아빠가 일본인이면, 일관성 있게 일본어로만 아이에게 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유짱이 일본어로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한국인 사이에서 제가 일본어로 혼잣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과연 유짱의 첫말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만큼, 역시 '엄마', '아빠'와 같이 한국어를 말할까요? 제 노력이 빛을 발해 '마마(ママ)', '파파(パパ)'와 같이 일본어를 말할까요? 유짱이 조금 더 성장해 말문이 트이면, 그때 독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 3년만에 일본에 가다!

JENESYS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서의 특별한 만남



글·사진 : 이어진
일본문화원 리포터 8기



안녕하세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일본문화원 리포터(8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어진입니다. JENESYS 청소년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일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지난 9월,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의 방문이라 새로운 만남과 일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동안 다양한 사람과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일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청년방일단으로 참여하며 느낀 점과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었던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만난 인연과 새로운 만남

가장 먼저 도쿄에서 만난 인연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여러 방면에서 방일단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일본의 일한문화교류기금과 여행사 담당자 그리고 통역 선생님입니다. 2019년도에 JENESYS 대학생 쿨재팬 리포터로 일본을 방

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방일단을 이끌어 주셨던 일한문화교류기금 담당자가 이번 여정에도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새롭게 만난 사람 등 저에게는 너무나 설레는 시작이었습니다.

01 비행기 02 일본문화교류기금 직원과 8기 리포터

02





둘째 날부터 방일단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류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생 방일단 동창회 조직인 JKAF와 함께 한일 양국 교류에 대한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해서인지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금세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양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일 교류라는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학생부터 시작해서 작은 민간 교류에 의해 지속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토론회 이후 참여했던 사람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SNS 팔로우를 할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일회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3일 차에는 교류회 때 친해진 일본 대학생 친구와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며 문화 체험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 시찰을 통해 개인적인 여행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에노(上野) 부터 시작해 아키하바라(秋葉原) 까지 걷어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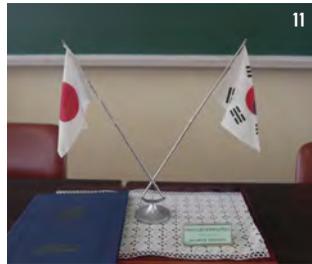
- 03 자유 시찰 단체사진
- 04 JKAF 교류회
- 05 도키와소면화류지점 시찰
- 06 아메요코
- 07 도쿄 자유 시찰
- 08 아메요코 사시미



다양한 만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

우에노 아메요코(アメ横)에서 구경하던 중 맛있어 보이는 사시미 가게를 찾아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장님이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며 먼저 말을 걸어주신 것을 계기로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일 양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문화 교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영상 제작을 배우고 있는 저로서는 콘텐츠의 힘을 통해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중요한 만남을 또 한 가지 꼽자면 교토에 있는 교탄고시(京丹後市)에서의 교류였습니다. 교탄고시 시청 직원을 시작으로 카누 체험을 하며 만난 지역 주민 그리고 한류를 너무 좋아하던 교토부립 단교료쿠후(京都府立丹後緑風) 고등학교 학생과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했습니다. 대중문화, 스포츠, 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못한 작은 것이 그들에게는 큰 영향을 준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일상이 교류의 주체가 되어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리포터 친구와 함께 한국 음식과 간식을 선물로 준비해서 드렸고, 받는 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되듯이 작고 소중한 우리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9 교탄고시청
10 단교료쿠후 고등학교
11 단교료쿠후 고등학교 한일 국기
12 귀국 후 일본문화원 리포터 8기

마무리하며

일본에서 보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주일간의 시간은 저에게 더 많은 한일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날갯짓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을 더 긴밀하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축이 되어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한국에 돌아간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관계자, 같이 방문했던 단장님, 6, 7기 OB 그리고 일본문화원 리포터 8기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18회 한일교류 말하기 대회



韓国人と日本人の情

그랑프리 수상자_강솔

韓国には、「いとこが土地を買えば腹が痛む」ということわざがあります。いとこって、家族みたいに近い関係で、嬉しいことがあったら一緒に喜ぶべきだと思いますが、このことわざでは、親しい血縁関係でも嫉妬をしています。土地を買いたいとも、相手がうらやむような話をしなければいいのに、わざわざ話さなくていいことを言ったせいで感情的にぶつかります。このように韓国人は、人に必要以上に興味があり、良い意味でも、悪い意味でも、相手と交わろうとします。反対に日本人は、自分の私生活に関する話を避けようとしていると韓国では思われていますが、そのような態度は「人に無関心だな」とみられてしまいます。

しかし、以前、日本へ旅行した時、韓国人のそういう思いは偏見なのではないかと思った経験をしました。日本語が下手だった当時の私は、看板や表示板に書いてある日本語が読めなくて、長い間同じ場所で道に迷っていました。私も多くの韓国人と同じように、周りにいるみんなが私に関心がないと思って気安く助けを求められなかったです。でも、その時おじさんが近づき、地図を見るのを手伝ってくれました。おじさんだけでなく、その様子を見ていた別のおばさんまで、私の目的地を探してくれました。また別の日は街の小さな居酒屋へ行ったのですが、日本語のメニューが読めなくて慌てていた私を見た店長が、注文もしていないのに先に申揚げをつくれました。その店長はずっと笑顔で私に話かけてくれました。私が聞き取りができないことを心配したのか、後からは直接翻訳機を使ってくれました。旅行が終わる最後の日には、出勤時間の電車に乗って空港へ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足の踏み場もない満員電車が続き、たくさんの荷物を持っていた私はどの電車にも乗ることができず見送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時、困っている私を遠いところから見つめていた駅員さんが走ってきて、手伝ってくれました。次の電車が来た時、大声でその当時の私には聞き取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ある言葉を繰り返してくれました。するとドアの前にいた乗客たち



は、車内がすでに動く隙間もないのに、どうにかして席を空けて私が乗れるように手伝ってくれました。おかげで、私は飛行機の時間に間に合いました。このようにして旅行で会った人々に感じたありがたさと感動を未だに忘れられない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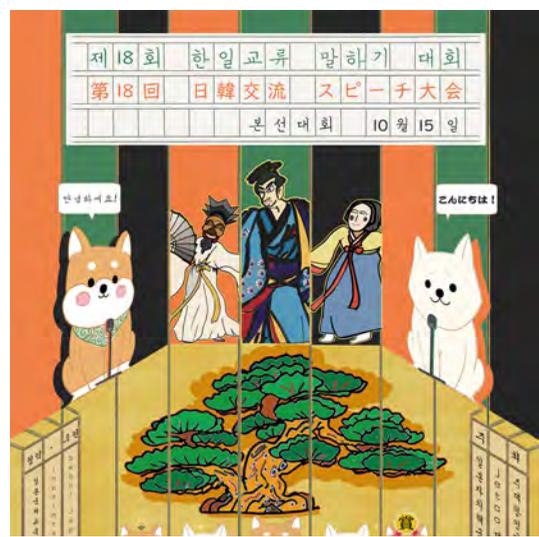
韓国人には、日本人は秩序を守り、マニュアルどおりに行動しているというイメージが強いです。共同体の中で規則を重んじる特性が、もしかしたら韓国人には相手への距離感として感じ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も私は日本旅行中に、日本人に親切と暖かさを感じ、無関心ではなく、韓

国人の俗に言う「情」とは少し違うまた別の「情」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私もそうですが、韓国人は一瞬に通る過ぎるささやかな繋がりを「情」として大切にしようと思います。そして私は日本旅行を通じて日本人にも韓国人と同じような豊かな情があることを学び、それで日本と韓国は実はよく似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韓国を誤解している日本人や、日本を誤解している韓国人がいたら、私が経験したこの両国の「情」に対する話をしてあげたいです。私にとって、とても大切な両国の繋がりがこれからもずっと続いてほしいです。

잊지 못할 친구와 나

금상 수상자 _ 토미 사오리(富沙織)

안녕하세요. 도쿄에 있는 조치대학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토미사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작스럽지만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잊을 수 없는 친구가 있으시나요? 저는 지난 6월에 제주도에 있었을 때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를 10년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발표 안에서는 그 친구를 유진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만든 친구였고, 제주도에 있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유진이를 통해 저는 제주도에 대해서, 초등학교생의 유행에 대해서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주도 사투리를 하나도 몰랐던 저도, 유진이와 많이 이야기를 하며, 제주도 사투리를 완벽히 구사하는 제주도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항상 ‘너 지금 시간인? 밖에 이신디 같이 놀자’ 하고 전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이 있을 때는 항상 ‘지금 뭐하고 인?’하며 안부를 물었던 것이 어제일처럼 느껴지며 그립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떠난 후에도 유진이와는 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연락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생일, 새해 인사 정도는 매년 챙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년만에 만나는 날,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가보니, 신기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한번에 알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뻐졌다 예뻐졌다 안아주면서 칭찬을 계속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 성인이 되고 취업을 앞두는 대학생으로서 추억이 야기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유진이가 한 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사오리 덕분에 외국인, 외국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공부했다, 사오리 생각이 자주 났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 유진이는 ‘사오리가 내가 처음으로 접하는 일본인이자 외국인이었고 너를 통해 일본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일본에 꼭 가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유진이는 처음에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유진이 뿐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 모두가 무서워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일본사람에게 안 좋은 이미지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편견을 깨고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 제가 도움이 됐나 싶어, 자기자신에게 조금 뿌듯했습니다. 유진이는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며 현재 제주도에서 영어 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저 역시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 만든 행



복한 추억들, 일본인인 저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준 감사함이 있기에 세월이 지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또 다시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유진이는 서로가 서로 모르게 자극해왔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국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우정을 쌓을 수 있어 특별함이 넘쳐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대한민국의 모습, 모든 것을 저는 존경합니다. 앞으로의 유학생활 중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과 함께 많은 한국인 친구를 만나 일본에 대해 전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친구, 유진이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저, 토미사오리라는 사람이 오래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사키현상 장난감 마을 KIM SANG GOO



오кина와현상 오키나와의 잔파 곳 KIM JI SEONG



산인상 3년만의 여름 AHN DONG KYUNG



돗토리현상 나와 할아버지 CHOI HEE JOONG



시즈오카현상 시즈오카 명소, 오뎅거리 JEONG YU JIN



에히메현상 바이신지역의 노을 KIM BONG WAN



아오모리현상 집중, 몰두 WON KANG SEOB



아키타현상 가쿠노다테 SHIN JONG HYEON



Epson상 태평양생식물원 OH JAE SEOK



제주특별자치도상 광치기해변에 핀 문주란 SONG CHANG HUN



제주관광공사상 sunset HIROTA RYUUYA



제주올레상 따라비오름의 가을 JANG JUNG IN



JAL상 수평선까지 직진 KANG BYEONG GUEN



ANA상 내일을 향해 PARK JIN WOO



Nikon상 후지산 SONG JU YOUNG



9월 日韓フォトコンテスト
한일포토콘테스트

INTERPARK상 한국의 소나무 CHO KYUNG HOON



LEXUS상 즐거운 갯벌체험 LEE SEONG WOOK



타쿠미콘상 금빛 바다 LEE YOUNG JAE



Inpainter Global상 북알프스의 속살을 걸어 PARK JI SIKOB



Vector Com상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길 속으로 KIM JUNG SOO



CLAIR상 후지산의 일출 SHIN SEUNG HUN



주한일본대사관상 비눗방울 JEON HYEON MIN



주한일본대사관상 올라라! 하코네! LEE SANG JUNE



제주일본총영사관상 Palette YONG YU JI



특별상 종달리 마을 풍경 JUNG JU HEE



특별상 명월성지에서 바라본 비양도 KAMEMURA RYOKOB



특별상 셔터찬스 YOSHIMURA MAKOTO



특별상 아저씨의 마음에 든 풍경 KUSUDA MASANORI



특별상 친구 HAN JIN MYEONG



특별상 조용한 봄날의 아침 KIM CHUR HYUN



제 9 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작품